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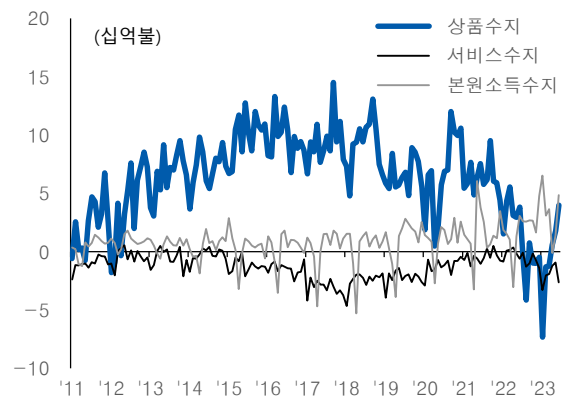


대외부문 개선의 효과

1. 국제수지, 빠른 회복과 적응

-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잘 설명하고, 특히 환율의 방향성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음.
- 6월의 경상수지는 58.7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합산 24.4억불의 흑자를 보임. 상품수지의 개선에 기인.
- 전반적인 대외 환경상 한국의 긍정적 흐름을 더욱 잘 볼 수 있음.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 의견이 확산되면서 한국의 성장세도 긍정적 전망.

경상수지 회복을 견인한 부분은 상품 무역과 이자 및 배당소득과 관련된 본원소득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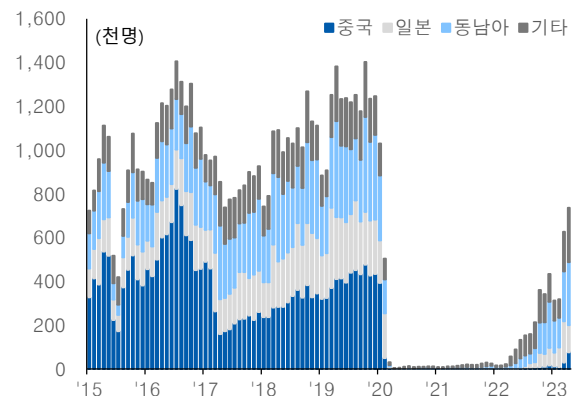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서비스수지, 여행부문 변화 기대

- 상대적으로 부진한 서비스수지는 26.1억불의 적자를 기록. 상품과 본원수지 등 주요 항목이 흑자폭을 확대한 부분과 대조적.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입의 회복이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 개선은 중국 입국자수의 회복에 의존.
- 주요국 입국자수는 회복되었으나 중국국적 입국자수는 낮은 수준. 그러나 최근 모멘텀 회복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중. 이는 서비스수지의 개선 가능성을 지시.

주요 국가별 입국자수의 회복이 진행된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수도 유의미한 변화 진행중.



자료: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국제수지, 빠른 회복과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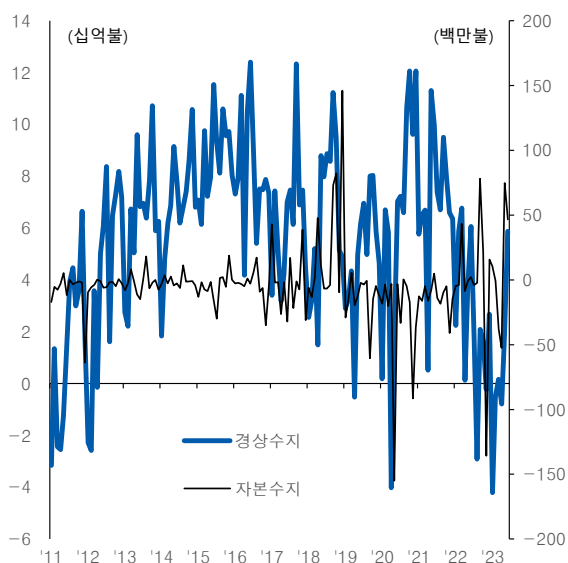
대외 부문에서의 넓은 시각을 통한 거시경제의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교역만을 다루는 무역수지보다 상위개념인 경상수지 및 국제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잘 설명하고, 특히 환율의 방향성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금년 6월의 경상수지는 58.7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합산 24.4억불의 흑자를 보여주고 있다. 금년 6월 경상수지의 많은 부분을 기여한 것은 최근 수입물가 진정에 따른 상품수지의 흑자로써, 39.8억불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본원소득수지가 48.5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외교역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투자를 통한 수익까지 발생하면서 경기의 상승모멘텀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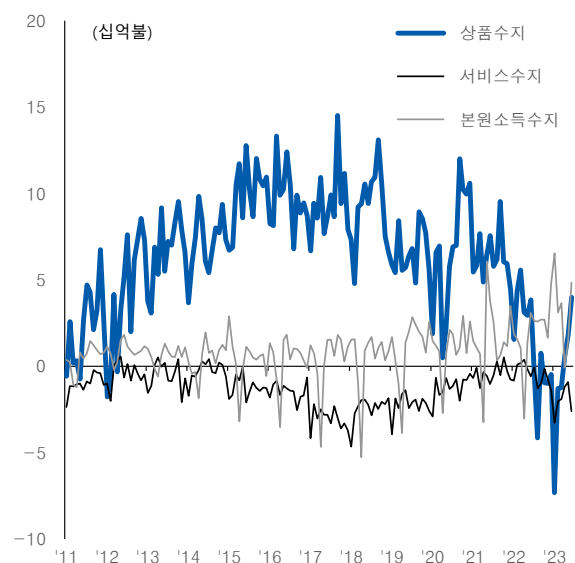
결국 상품수출입을 통한 경기방향보다 전반적인 대외 환경상 한국의 긍정적 흐름을 더욱 잘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되는 만큼 한국의 성장세에 있어서도 긍정적 전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트1] 연초 이후 경상수지 전체의 빠른 회복이 진행중이며 자본수지도 변동성은 높지만 회복세 두드러짐.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경상수지 회복을 견인한 부분은 상품 무역과 이자 및 배당소득과 관련된 본원소득수지.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서비스수지, 여행부문 변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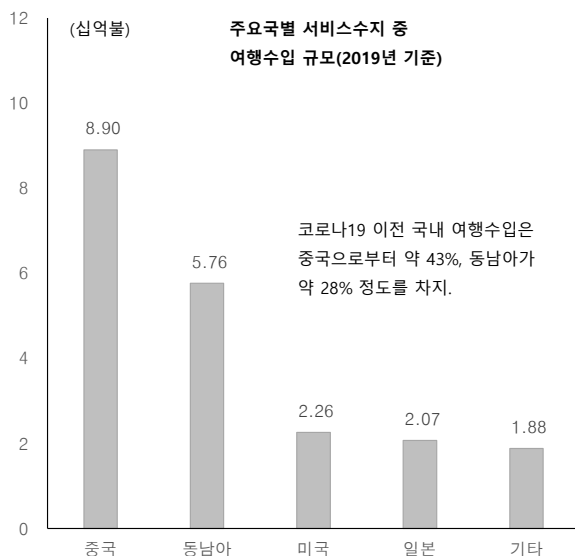
경상수지 중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분은 서비스수지이다. 경상수지가 약 60억불 흑자를 기록하였고, 상품과 본원수지 등 주요 항목이 흑자폭을 확대하였지만 서비스수지는 26.1억불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된 요인은 여행수지이다. 6월 여행수지는 -12.8억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월 및 전년 대비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다. 주된 요인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여행수입보다 여행지급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금년 연초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진행되면서 지출금액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입의 회복이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코로나19 이전 기준 중국에서부터 발생하는 여행수입은 전체 여행수입에서 약 43%를 차지한다. 결국 서비스수지의 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은 중국 입국자수의 회복에 의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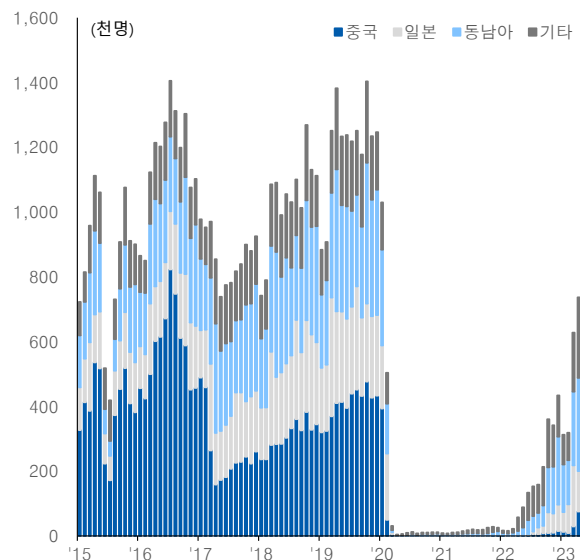
금년 들어 관광목적 일본과 동남아 입국자수는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상당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중국국적 입국자수는 낮은 수준이며, 여전히 확대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비스수지의 개선이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차트3]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입의 절반 이상을 중국과 동남아 여행 유입에서 창출.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주요 국가별 입국자수의 회복이 진행된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수도 유의미한 변화 진행중.



자료: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국내공급 변동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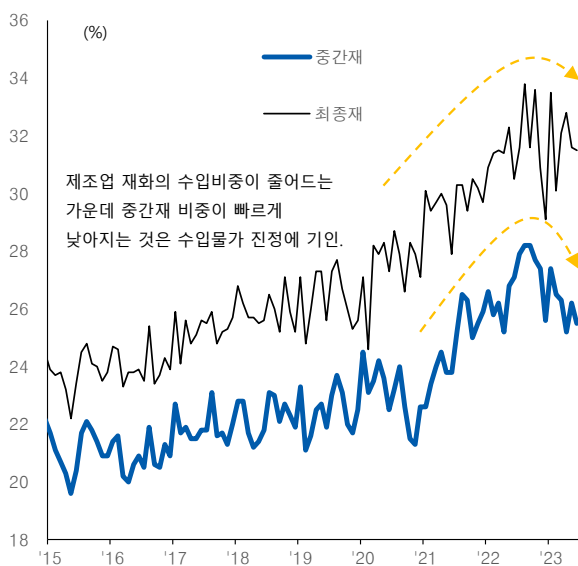
국내공급지수는 제조업제품의 국내 공급량 변화를 국산과 수입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를 통하여 국내에 얼마나 많은 재화가 공급되었는지를 볼 수 있으며, 수요의 강건성에 대한 간접적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먼저 국내 공급 중 수입품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 특히 생산을 위한 중간재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결국 수입물가의 진정으로 인한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부담 완화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업활동에 있어서 마진 개선이 예상되는 또 하나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최종재의 공급은 전반적인 구매력과 수요를 대변할 수 있다. 사실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본격적 회복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년 1월의 큰 부진 이후 회복세는 완연한 상황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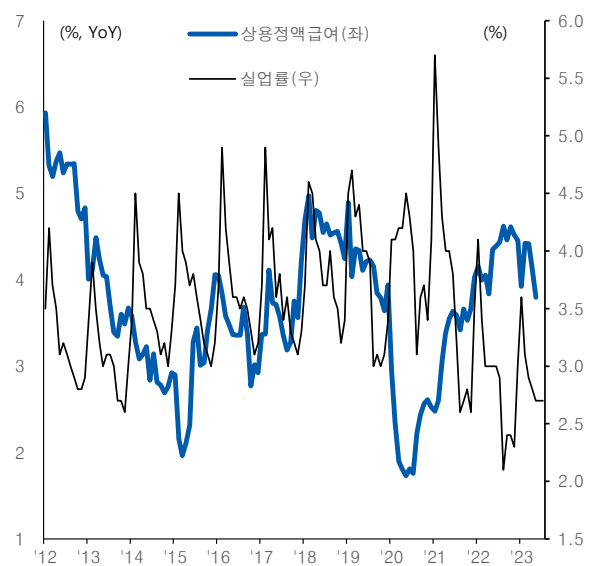
이와 같은 수요의 회복은 구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과 고용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실업률이 2%대 후반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임금상승률이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향후 지속적 수요의 강건성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로 생각된다.

[차트5] 국내 공급에서 중간재의 수입비중이 낮아진 것은 수입단가의 하락에 기인하며, 이는 채산성에 영향.



자료: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수요 유지를 위한 구매력 측면에서 낮은 실업률과 회복된 임금상승률이 확보되면서 긍정적 모멘텀 전망.



자료: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